‘초대형 난개발’ 문제 조계종 자료집 제작

청와대 등 1000여 곳 배포

현대차 신사옥(GBC)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초대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온 조계종이 자료집을 제작, 청와대 · 국회 · 서울시 등에 배포해 심각성을 알린다.

봉은사역사문화환경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명 · 지현)는 “천년고찰 봉은사 주변 구 한전부지 일대에서 계획 중인 대규모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수록한 자료집을 배포했다”고 7월 4일 밝혔다.

대책위는 자료집 제작 배경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이 국민 안전과 천년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자 자료집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집은 △천년고찰 봉은사의 중요성 △현대차 신사옥 GBC 개발 및 영동대로 개발과 봉은사 △대규모 개발의 문제점 △조작과 부실! 도시와 시민의 삶을 망치는 대규모 개발 이렇게는 안 됩니다 등 네 단락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자료집을 청와대 내각과 국무총리 등 각 장차관, 국회의원 전원, 문화재청 및 서울시 문화재위원, 각 교구본사주지스님과 종회의원, 주요사찰 주지 스님 등 1000여 곳에 배포해 대규모 개발의 문제점을 호소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재정 정상화·승려교육 개혁 적임자는?

[진단]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과제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의 정견과 함께 선거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태고종의 시급한 과제를 진단해본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는 7월 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26대 총무원장 후보자 정견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견발표회에는 200여 대중이 참석해 종단 발전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재정

부동산 환수 등 대안 제시

의무금 납부 이행은 회피

구상권 청구 이견, 갈등요소

교육

종립대 사이버대학 개설

수행승 전액 지원 공통입장

재원 마련 계획 없어 아쉬움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후보 정견발표회에서는 각 후보들의 다양한 종단 현안 해결방안이 제시됐다.

‘종단 재정 정상화’ 최우선 과제로

이날 토론에서는 태고종 재정 정상화에 대한 태고종도들의 관심이 몰렸다. 첫 공통질문도 40억원이 넘는 ‘종단 부채’를 당선 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기호 1번 능해 스님은 이 문제에 대해 ‘부동산 환수’를 제시했다. 능해 스님은 “수익사업 전개와 함께 종단 망실재산 환수위를 구성해 재산 환수로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다. 조계종의 경우 심원사가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을 환수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기호 2번 백운 스님은 대출기관과의 금액삭감 협상 및 이자동결을 제시했다. 스님은 “종도에게 부채를 전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반드시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기호 3번 지홍 스님은 부채청산위 구성 및 청문회 개최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제시했다. 지홍 스님은 “실질적인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채권회수를 통한 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또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조건의 부채상환 대책 마련도 나서겠다”고 제안했다.

기호 4번 대은 스님은 중단기 상환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먼저 부채상환특위를 구성해 부채구조를 파악하겠다. 종단 사찰 운영실태 공개 및 각급 감사제도 정립으로 재정 투명화를 통해서도 재정확충을 이루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은 종단 부채 원인 제공자 처벌 및 구상권 청구에 이견을 보이는가 하면 종단 의무금 납부율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백운 스님과 지홍 스님이 찬성을, 능해 스님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종단 내부의 갈등 소지도 드러났다.

‘승려교육 개편’도 과제로 꼽혀

두 번째 과제로는 태고종 승려기초교육 개선이 꼽힌다. 기호 1번 능해 스님은 동방불교대의 내실있는 교육 및 사이버대 설립 등을 제시했으며, 기호 2번 백운 스님은 이 · 사판의 이원화 교육과 이판 교육을 담당하는 정수원 설립 및 교육 전액 지원 등을 약속했다.

기호 3번 지홍 스님은 동방불교대 학점은행제 도입 및 재가자를 위한 전법사교육원 확대개편, 교육도서 발간 등을 통한 교육제도 개선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기호 4번 대은 스님은 비구니 전법사 제도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한 육부중 체계 확립, 법계고시 및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각 후보들은 출가자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태고종 교육제도 개편에 입장을 같이 했다. 특히 수행승에 대한 종단 지원을 약속했지만 장학금 지원 등에 대한 재원 마련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정견발표회에서는 선암사 분규 해결 및 종단 위상 강화 등의 과제가 드러났다. 각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토론회는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묻는 자리로 진행됐다. 열띤 토론 끝에 사회자인 도완 스님은 총무원장 선출 후 2년 공약이행률 점검을 제안했다.

한편 태고종은 이날의 정견 발표회를 끝으로 7월 1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26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성 범계 엄중 처벌”

조계종 호법부 담화문 발표

최근 출가수행자들의 성 관련 범계행위가 언론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조계종 호법부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세영)는 7월 4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승가의 위의를 훼손하는 성 관련 범계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호법부는 “최근 일부 스님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범계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종단과 승가 전체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출가수행자의 위의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범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법과는 별개로 종헌종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스님은 일정기간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윤호섭 기자

군종교구장 혜자·선일 스님 복수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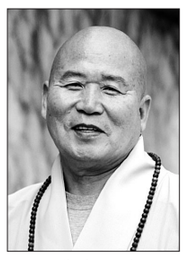
후보 단일화 못해… 교구장 이취임식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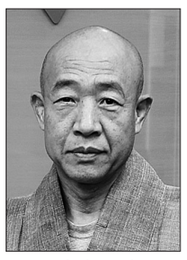
조계종 제4대 군종교구장 후보로 혜자 스님과 선일 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7월 5일 상임운영위원회를 열고, ‘제4대 군종교구장 추천의 건’을 다뤄 이 같이 결의했다. 회의서는 총무원장 추천 상임위원인 우봉 스님(중앙종회의원)이 108산사순례회 회주 혜자 스님을, 육군본부 군종실 대령 이정우 법사가 현 부교구장 선일 스님을 추천했다. 이에 상임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총무원과 군종교구 간 추천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논의했다.

1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위원들은 10분 정회 후 재논의에 들어가는 등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결국 상임위원회는 두 후보를 복수 추천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복수의 군종교구장 후보가 추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2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을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서 상임위원회 표결은 있었으나 이를 거쳐 결국 단일화를 이뤄냈다. 이번 회의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군종교구 측 참석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혜자 스님


선일 스님

상임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군종교구장, 국방부 원광사 부주지, 총무원 당연직 4인과 총무원장 추천 5인, 당연직 군승 4인과 군승 추천 6인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 측 인사인 가섭스님(포교부장)과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정범 스님(중앙종회의원) 등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결국 군종교구장 선출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결정에 달렸다. 이로써 총무원 측 추천 후보인 혜자 스님의 선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 경우 ‘총무원이 추천하고 선출한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의 임기는 7월 24일이며, 교구장 이취임식은 27일 용산 국방컨벤션서 진행된다.

혜자 스님은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수계했다. 현재 제16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논산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에 1억 원을 쾌척하고, 군에 초코파이를 보시하는 등 군포교에 앞장섰다.

선일 스님은 운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 수계했다. 해군 군법사 출신으로 현재 한국청소년교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마곡사·용주사 의혹… 책임 물을 것”

종단개혁연석회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촉구

2013년과 2015년 각각 불거진 마곡사 금품선거 및 용주사 범계행위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불교시민사회가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종단개혁연석회의)는 “마곡사 금권선거와 용주사 범계행위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종헌 · 종법에 의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수행종풍의 수호와 종단의 위의를 확립하라”고 7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다.

이들은 불자인구가 300만 감소(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한 것도 교단 내 여러 범계행위가 큰 원인이라면서 변화를 통해서만 종도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종단 운영의 근본적 토대인 종헌 · 종법은 어떤 이유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무너진 종단의 위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과 종도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말했다.

용주사 주지 스님을 둘러싼 범계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의혹 해소를 위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권고하고, 또한 현 용주사 주지 스님도 2015년 10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과학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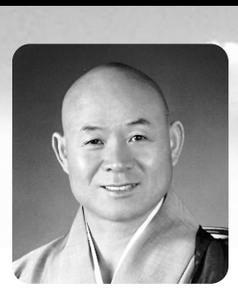
아울러 마곡사 금권선거에 대해서도 법원이 2015년 5월 ‘종법에 의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지만 호법부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종헌 · 종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종단이 적폐청산과 종단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종도들과 함께 총무원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7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